

6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박창식
서 기 신종철

1. 조직

- 위 원 장 : 박창식
- 서 기 : 신종철
- 총 무 : 김병희
- 위 원 : 김보석 배영국 김민교 조영기 박정권 박경문 김상원 김성환 송준학 서정수 김상신
문상무 조현우
- 고 문 : 장차남 정성구 서기행 박무용
- 전문위원 : 김남식 심창섭 박용규 김효시 장영학
- 부위원장 : 김희수
- 회 계 : 강성규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8. 11. 8(목) 14: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3회기 역사위원회 임원 및 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고, 회의에 불참한 서기 신종철 목사를 대신하여 임시서기로 총무 김병희 목사를 세우기로 하다.
위원장 : 박창식 목사, 부위원장 : 김희수 목사, 서기 : 신종철 목사, 회계 : 강성규 장로, 총무 : 김병희 목사
사료분과 : 분과장 조영기 목사, 서기 김보석 목사, 회계 송준학 장로, 총무 박정권 목사
사적지정분과 : 분과장 김민교 목사, 서기 서정수 목사, 회계 조현우 장로
연구분과 : 분과장 김상원 목사, 서기 박경문 목사, 회계 배영국 장로, 총무 문상무 목사
- ②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위원회 내 교회사적으로 3.1운동연구를 살펴보기 위한 분과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다.
3.1운동 연구분과 : 분과장 김상신 목사, 서기 김성환 목사, 회계 신종철 목사, 총무 김병희 목사
- ③ 103회기 역사위원회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조정 및 기타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19. 6. 28(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역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총회역사관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후 별지 개정(안)에 대하여 거수투표하니 참석위원 전원찬성 투표하여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가결하다. 또한, 개정(안) 및 사적지 지정매뉴얼(내규)를 총회규칙부로 보내 심의를 요청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요청하기로 하다.
- ③ 제103회기 사업결과는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 ④ 제104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보고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⑤ 정기간행물 역사저널집 「장로교 역사와 신앙」제2호를 3.1운동100주년기념 특집호로 발간하여 총회시 배부하기로 하고, 편집발간위원을 통해 해당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다. 또한, 부족한 예산은 제104회기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하다.
- ⑥ 제104회 총회현장에서 역사관련 전시회를 갖기로 하고, 임원회에서 준비하기로 하다.
- ⑦ 총회보고서 작성 및 기타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 분과회의

(1) 제1차 회의(임원 및 분과장 회의)

☞ 일 시 : 2018. 12. 20(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3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계획 및 일정에 대한 세부논의는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다. 사적지지정감사에배의 경우 현재 개략적으로 일정이 정해진 영남지역(경북의성)의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6개처와 영덕 송천교회는 3월중에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 ③ 본 교단 3.1운동 100주년 참여교회 전수조사는 해당교회 공문발송 및 위원들이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기로 하다.
서울지역 : 김희수 목사, -서북지역 : 김민교 목사, -전남지역 : 강성규 장로, -전북지역 : 김상신 목사, 중부지역 : 신종철 목사, 조영기 목사, -대구/부산지역 : 박창식 목사
영남지역(대구/부산제외) : 김병희 목사, 김상원 목사
- ④ 기독교신문의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관련 기획연재 및 재정보조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제103회 총회결의에 따른 상설위원회 규정 개정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다.
- ⑥ 역사저널집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신종철 목사의 청원대로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총회역사위 임원 : 서기(편집위원장) 신종철 목사, 총무 김병희 목사
역사위 연구분과 : 분과장 김상원 목사, 서기 박경문 목사
3.1운동연구분과 : 분과장 김상신 목사, 서기 김성환 목사 (총 6명)
- ⑦ 역사저널집 미수금 정산처리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신종철 목사)과 출판사업국장과의 해당 제작비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하고 남은 미수금(W1,50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다.
- ⑧ 총회역사관 사료교체 추가내용(총회신학원)진행사항을 실무진에게 보고받고, 임원회에 맡겨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 ⑨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및 순교사적지 현판제작은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연구분과 및 3.1운동연구분과 연석회의)

㉮ 일 시 : 2018. 12. 28(목)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일시 : 3월 7일(목) 또는 21일(목)으로 하되, 총회장 일정을 고려하기로 하다.

장소 : 승동교회 또는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고, 참석자 식사를 승동교회에 요청기로 하다.

강사 : 김남식, 박용규, 김효시, 박창식, 신종철, 김병희

위 강사에 대한 섭외 및 강의원고 요청은 연구분과장, 3.1운동연구분과장, 3.1운동연구분과 서기 및 회계(5인)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② 학술세미나에 대한 기독교신문 광고는 연구분과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③ 기타 사항은 연구분과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사료분과회의)

㉮ 일 시 : 2019. 1. 1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역사유물 및 사료제출 협조를 위한 노회공문 및 전국교회 문자발송, 기독교신문에 역사유물 기증을 협조요청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로 하다.

- ② 총회역사관 및 사료실 사료 보존현황에 대하여 사료분과장 조영기 목사와 총회직원의 설명을 듣고, 1층 총회역사관 및 6층 사료실에 보관된 사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료목록(DB)작업과 분류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총회직원을 도와 1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여 해당 사료에 대한 목록화 및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현재 지난 102회 총회에 청원하여 지정된 “한국기독교역사유물 제1호 역대 총회회의록”에 대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혹시 모를 화재로 인한 해당 사료의 소실, 분실, 도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총회회의록의 복사본 생성과 해당 복사본을 스캔하여 전자문서(PDF)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회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 ③ 타 교단의 역사관 및 자료실을 방문하여 유물 및 사료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를 2019년 1월 29일(화)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임원 및 사적지지정분과장회의)

㉮ 일 시 : 2019. 1. 24(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사적지 지정감사에배 추진계획 초안(예산/일정/순서자)에 대하여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③ 총회에 제출된 3.1운동 참여교회 조사표 제출현황과 함께 위원장이 연구하여 앞서 총회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1차적으로 정리한 참여교회 현황자료(별지2)을 받고 9월 총회전까지 3.1운동 참여교회를 계속 조사하기로 하다. 또한, 3월 21일(목) 오전10시, 승동교회당에서 개최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는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기로 하다.



행사 순서자 초안을 임시로 받고 위원장을 통하여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기로 하다. 세미나 예산은 양 위원회가 공동 부담하며 진행하기로 하다.

- ④ 9월 제104회 총회시 배포될 역사저널집 [장로교 역사와 신앙] 제2호 주제를 3.1운동 100주년 특집으로 정하고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저널집의 수록내용과 예산 등을 함께 논의하여 공동발간하기로 하다.
- ⑤ 사료분과(분과장 조영기 목사)의 아래 추진사업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하다.
 - 가. 총회역사관 및 사료실 사료DB 목록화작업 및 역대 총회회의록 복사 및 전자문서(PDF)생성을 위한 임시 아르바이트직을 구하기로 하다. (작업기간 : 1개월, 해당비용 : 200만원)
 - 나. 역대 총회회의록 복사 및 전자문서 생성작업을 위하여 총회임원회에 실무협조를 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사적지지정분과회의)

- ☞ 일 시 : 2019. 2. 7(목)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역사위원회 사적지 지정감사예배는 추진(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향후 모든 일정은 분과장과 실무직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연구분과회의)

- ☞ 일 시 : 2019. 2. 13(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2019년 3월 21일(목)에 열리는 한국기독교와 3.1운동 기념세미나 행사계획(안)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위 세미나행사를 홍보 및 독려하기 위하여 노회공문 및 문자발송, 기독신문에 광고하기로 하다.
 - ③ 기타 잔무는 연구분과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사료분과회의)

- ☞ 일 시 : 2019. 5. 24(금) 13:00
- ☞ 장 소 : 감리교본부 역사정보자료실
- ☞ 결의사항
 - ① 감리교본부 역사정보자료실(경기도 양주)을 방문하여 사료보관 실태와 관련현황 설명을 듣다.
 - ② 역대 총회회의록 사본에 대한 전자문서(PDF)를 생성하고, 양장본을 제작하기로 결의하다.
 - ③ 이를 위해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하다.

(8) 제8차 회의(임원 및 분과장회의)

- ☞ 일 시 : 2019. 6. 3(월) 19:55
- ☞ 장 소 : 인천백령도 중화동교회 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회의에 불참한 서기 신종철 목사를 대신하여 임시서기로 총무 김병희 목사를 세우기로 하다.

- ③ 제103회기 위원회 추진사업 내용은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여 받기로 하고 예결산은 현재 현황대로 예결산 보고를 받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임원과 사료분과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④ 역사위원회 규정 개정 및 사적지 지정 매뉴얼 규칙부 심의요청건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 ⑤ 제104회기 중점 추진사업 및 예산초안 작업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⑥ 제104회기 총회 청원은 부귀중앙교회, 광활교회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서두교회는 제104회기로 넘기기로 가결하다. 그리고 영주 연단교회는 위원장 박창식 목사와 총무 김병희 목사에게 위임하여 추후 보고하기로 하다.
- ⑦ 삼일운동 백주년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역사저널집 「장로교 역사와 신앙」 발간은 편집위원회에 맡겨 삼일운동 특집호 발간하도록 하다.
- ⑧ 백령도 중화동교회를 한국기독교사적지로 지정하기로 가결하고, 서기 신종철 목사, 총무 김병희 목사에게 백령도에 관한 연구글을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그 연구내용을 기초 근거하여 '백령도를 한국기독교의 섬'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총회 청원하기로 하고 제반 사항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9) 제9차 회의(임원 및 사료분과장회의)

☞ 일 시 : 2019. 6. 14(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역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검토 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역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③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정관련 제104회기 총회청원을 위하여 아래 담당자를 정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다.
광활교회, 연당교회 : 박창식 목사 / 부귀중앙교회, 서두교회 : 신종철 목사 / 중화동교회 : 김병희 목사
- ④ 영주 연단교회에 대한 사적지 현장조사를 위하여 위원장 박창식 목사, 총무 김병희 목사, 사적지지정분과장 김민교 목사가 방문하여 사적지지정청원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또한, 익산 서두교회에 대한 사적지 현장조사는 임원 및 사적지지정분과위원과 함께 방문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 ⑤ 백령도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의 섬”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104회기 총회에 청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서기 신종철 목사에게 맡겨 제출하도록 하다.
- ⑥ 역대 총회회의록 전자문서(PDF) 사본생성 작업은 현행대로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전자문서(PDF) 공개 및 영인본 제작에 대하여 제104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⑦ 금번 104회 총회시 배부할 역사저널집 발간 편집을 들어가기로 하고, 승동교회의 3.1운동관련 연구논문은 서기 신종철 목사에게 맡겨 작성토록 하다.
- ⑧ 차기 전체회의를 2019년 6월 28일(금)오전11시,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역사저널집 편집발간위원회)

☞ 일 시 : 2019. 7. 19(금) 11:00

☞ 장 소 : 총회회관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역사저널집 편집발간위원회 서기로 김성환 목사를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② 역사저널집「장로교 역사와 신앙」제2호-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호로 발간하기로 하고 발행부수는 2,000부로 조정하여 제작하고 저널집 부록은 3.1운동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보고서만 수록하기로 하다.
- ③ 역사저널집 수록 목차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다.
 - 가. 3.1독립만세운동과 한국장로교 / 박용규 박사
 - 나. 백은 최재화 목사와 독립운동 / 김남식 박사
 - 다. 3.1운동과 오방 최홍종 목사 / 김효시 박사
 - 라. 3.1운동과 승동교회 / 최준희 목사
 - 마. 호남지역 3.1운동사 연구 / 신종철 박사
 - 바. 영남지역 기독교계 3.1운동사 연구 / 박창식 박사
 - 사. 북간도지역 기독교계 3.1운동사 연구 / 김병희 박사
 - 아. 부록 / 3.1운동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보고서
- ④ 역사저널집 원고를 작성한 승동교회 최준희 목사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하다.
- ⑤ 기타 미진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3) 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23(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채택 중 “서기 신종철 목사의 회의불참으로 임시서기를 총무 김병희 목사로 정하고 회의록을 기록하기로 하다.”라는 내용을 삽입, 수정하여 받다.
- ② 제103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받기로 하되, 연구학술세미나를 3월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3.1운동 연구분과위원회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③ 군산남노회의 익산서두교회 순교자기념교회 지정청원 서류는 순교자기념사업부에 이첩하도록 하고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 ④ 역사저널집 편집위원 구성 건은 편집위원장에 서기 신종철 목사로 정하고, 위원선정은 편집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⑤ 지난 회기 역사저널집 미수금(350만원)처리는 역사저널집 편집위원장 신종철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
- ⑥ 제103회기 고문 및 전문위원 선임은 기존 고문 2명을 포함하여 신입고문에 서기행 목사(호남 중부), 박무용 목사(영남) 2인을 위촉하기로 하다
- ⑦ 총회역사위원회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을 두기로 하고, 김정훈 목사, 오광춘 장로, 손원재 장로 3인을 위촉하기로 하다.
- ⑧ 제103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회기에 수고한 박세형 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을 그대로 위촉하기로 하다.
- ⑨ 총회역사관 사료교체 추가내용(총회산하기관 총회신학원 표기, 제103회기 역사위원회 조직명단)은 교체하기로 하다.
- ⑩ 제103회기 총회역사위원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역사위원회 임원과 분과장 회의

로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① 제103회기 총회역사관장 선정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고, 총회임원회에 인준을 청원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2. 14(목)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기독교신문의 3.1운동 100주년 특집 연재기획과 관련한 재정지원요청에 대하여 1919년 3.1운동을 통해 사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한국교회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 100주년 행사가 단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전국 교회에 이를 제대로 알릴 필요성과 함께 교단 신앙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독교신문의 이러한 노력에 본 위원회도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 예산내에서 500만원 (특집연재기획 발제기고 원고료 지원 및 3.1운동100주년관련 전국교회대상 설문조사, 일본동경 2.8선언관련 현장취재지원 등을 위한)을 지원하기로 하다.
- ② 연구분과가 실무를 맡아 준비하고 현재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는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 행사계획(안)”은 유인물대로 승인하기로 하다.
- ③ 사적지지정분과가 실무를 맡아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1호 지정감사예배(2/18오전11시, 고흥읍교회)와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2호 및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3호 지정감사예배(2/18 오후2시, 소록도5교회),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5호 지정감사예배(법성교회)에 대한 행사순서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3. 9(토) 15:30

☞ 장 소 : 군산구암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역사위원회 추경청원 건은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 ③ 본 위원회와 기독교신문사 삼일절100주년 관련 공동여론조사 추진 건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3. 21(목) 10:00

☞ 장 소 : 승동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3.1운동 100주년기념세미나시 강사 강의를 30만원 지급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9. 7. 24(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역사저널집 진행은 편집위원장 신종철 목사의 보고를 받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받기로 하다.
- ④ 총회기간 중 진행할 역사전시회 준비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⑤ 감사부의 정기감사 일정공지 및 시정결과 회신요청에 대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기로 하다.
- ⑥ 역사위원회 3년조 선임추천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⑦ 제임스 아담스(안의완 선교사)가 설립한 대구지역교회에 대하여 사적지 청원을 하기로 하고 현장실사를 위원장과 총무에게 맡기기로 하다.

3. 결산

(2019.7.31.현재)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회의비	10,000,000	회의비	9,830,000	전체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등
연구관리	40,000,000	사적지 지정감사에배 진행관련 제경비	14,660,000	9곳
		사적지 지정현판제작	3,448,500	
		학술세미나 경비	7,712,000	책자/전단지: 1,452,000 여비/순서비(원고료): 4,210,000 행정비(코사지현수막): 300,000 행사광고(기독신문): 1,750,000
		설문여론조사	5,500,000	기독신문 - 총회역사위원회 공동진행 3.1운동 전국민 인식조사
		사적지발굴현장답사	2,906,000	백령도중화동교회, 영주연당교회, 익산서두교회 등
		사료기증독려광고/문자	2,250,000	문자:500,000(전국교회단체문자) 기독신문광고: 1,750,000
		역대 총회회의록 전자문서화 스캔작업	1,581,500	복스캐너: 515,000 스캔임시아르바이트: 1,066,500
		103회기 저널집 선금	3,000,000	
		102회기 저널집 미수금	1,500,000	
		역사관자료교체	538,700	
		사료기증작업	1,290,000	스코틀랜드장로교회연합도 기증실무
		추경예산	5,000,000	기타잡비
합 계	55,000,000	합계	55,018,450	

〈현재까지 총회사적지 지정현황〉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1호	승동교회	제1호	염산교회
제2호	금산교회	제2호	만경교회
제3호	초량교회	제3호	소록도5교회(순교자 김정복 목사) (중앙, 신성, 동성, 남성, 북성교회)
제4호	주기철목사 일제강점기 수난지-의성경찰서	제4호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6개처 교회 (중리, 효선, 현리, 춘산, 금천, 산운교회)
제5호	중리교회	제5호	법성교회
제6호	전주서문교회		
제7호	군산구암교회		
제8호	개복교회		
제9호	광주양림교회		
제10호	송천교회		
제11호	고흥읍교회		
제12호	소록도5교회(순교자 김정복 목사) (중앙, 신성, 동성, 남성, 북성교회)		
제13호	삼도교회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조사보고서 (요약)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1. 제14호 / 부귀중앙교회
2. 제15호 / 백령도 중화동교회
3. 제16호 / 익산 서두교회
4. 제17~20호 / 대구지역 최초 선교사인 James E. Adams(安義窩)가 설립한 4개 교회-
5. 사월교회(1898), 반야월교회(1905), 범어교회(1906), 대구서문교회(1912)
※ 백령도 “한국기독교의 섬” 별도 지정청원

※ 위 사적지에 대하여 총회역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역사위원들이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였음

1. 부귀중앙교회

부귀중앙교회(당시: 거석리교회)는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에 있는 거석리 마을주민이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한 후 부귀면 거석리 428번지 교회부지와 건축자금을 헌납하여 1900년 초가(草家) 교회를 건립하고 시작되었다. 구전되어 오는 내용을 보면 1900년 거석리에 살고 있던 18세의 이원일은 어머니의 간질 병환을 고치기 위해 그의 형제 이원칠과 군산에 있는 서양의사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궁말교회를 찾아가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병환 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받게 되었다, 다시 자신의 집이 있는 거석리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집에 기도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1902년 그는 대지 200평을 교회부지로 헌납하여 초가 교회를 건립하여 예배를 드렸고, 이로써 거석리 교회의 역사는 본격화 된 것이다.

1985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발간한 총회사진명감을 보면, 부귀중앙교회의 창립일이 1900년 5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이원일의 장남 이원태 장로(면장)와 이 교회의 첫 번째 장로인 이원칠 장로의 장남 이삼암 장로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진안 거석리 교회는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에는 언급이 없다. 단지 1901년에 무주지역에 최초의 교회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무주군(茂朱郡) 석항리교회(石項里教會)가 성립(成立)하다. 선시(先是)에 선교사(宣敎師) 마로덕(馬老德, McCutchen, Luther Oliver)과 전도인(傳道人) 이경문(李敬文)의 전도(傳導)로 신자초진(信者確進)함에 예배당(禮拜堂)을 신축(新築)하고 이경문(李敬文)이 교회(教會)를 인도(引導)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주군 석항리교회가 1901년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마로덕 선교사는 1902년에 내한하여 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무주군 석항리교회는 1902년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주, 장수, 진안지역은 1902년도부터 활동한 미국 남장로교 맥컷첸(McCutchen, Luther Oliver, 1902-1952, 한국명: 마로덕) 선교사에 의해 대부분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진안 거사리 교회는 선교사가 오기 전 군산 신유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후 자생적으로 집에

서 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이다. 거석리 교회의 설립일에 대한 고증할 만한 역사적인 문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거석리교회가 1900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거석리 교회 초대장로인 이원칠 장로의 장남 이삼암 장로가 1907년생으로 마로덕 선교사에게 유아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남 이정상 목사(서울은광교회 원로목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1900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무주지역 최초의 교회인 석항리교회를 인도한 이경문과 진주 거석리교회의 홍순기가 같은 시기에 장로 장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북노회 2회 임시회록(1918년 5월2일 군산 개복동 예배당)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전주 동남시찰보고: ① 진안군 거석리교회에서 제2회로 회집하여 피택장로 홍순기씨를 문답하여 장립하였사오며 ② 본위원회에서 별 위원 3인을 파송하야 진안군 봉학리 교회에서 피택장로 김하성씨와 무주군 석항리 교회 피택장로 리경문씨를 문답하여 장립하였사오며 ③ 진안 거석리 교회와 봉황리 교회를 주를 진실히 의지함으로 교회가 신령한 중에 장성하여 가오며

이를 살펴보면『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언급한 대로 1901년에 무주 최초의 교회인 석항리 교회를 인도했던 이경문이 1918년에 최초로 장로장립을 했는데 이때에 거석리 교회의 홍순기 역시 장립을 하여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의 최초의 장로 장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진안 거석리 교회는 앞에서 언급한 이상암 장로와 이정상 목사의 진솔에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기에 진안 거석리 교회는 1900년에 세워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부귀중앙교회사』에서는 당시 거석리 교회는 조직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보기보다는 ‘기도처’로서의 중요한 전도적 사명을 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이 교회는 비록 산골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교회였지만, 진안군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졌다. 마로덕 선교사의 조사인 최대진이 1908년 1월 15일자『예수교신보』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 지역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로덕 목사와 같이 본도 동북지방 진안 장수 무주 용담 금산 진산 연산 고산 여산 익산으로 다 날 새, 4년 전으로 말하면 십군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알고자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 재미없이 다니옵더니 그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각각 주의 말씀 듣기를 스스로 원하오며, 또 교회가 수십 처요 각 교회도 모이는 수효는 10인으로부터 80~90씩 되었고.

1911년 9월 18일에 대구 남문교회에서 개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제5회록을 보면 거석리 교회의 형편을 잘 소개하고 있다.

진안 거석리교회에서 4간을 새로 건축하였난대, 그곳은 산중(山中)인 고로 교인들이 심히 가난하야, 재정이 곤졸하오나 육신의 힘과 령혼의 믿음은 재정이 풍족한 곳보다 나음으로, 간략히 예배당을 건축하야 략성까지 되었사오며...

산중에 지어진 작은 예배당이 양지 바른 언덕위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예배당이 세워진 언덕 아래 동네, 지금의 상거석리를 ‘교회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배당이 새롭게 건축된 상거석리 양지



바른 언덕은 ‘교회골’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진안지역의 선교활동을 맡은 마로덕 선교사는 이곳까지 말을 타고 다니며 교회를 돌보았다.

장대준 집사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칼날같이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산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도망 다녔고 1939년 소천하였다. 강성락 영수와 이정상 등은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강성락 영수인 경우 설교사역에 많은 수고를 했으며 일제는 보수주의 신앙을 지키려는 강성락 영수를 주재소에 데려가서 수업을 잡아 당기고 따귀를 때리는 등 계속적인 협박을 했다고 전해진다. 1942년 거석리교회는 경제적 이유와 일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40여년을 지켜온 교회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1943년 교회가 없는 거석리에 정일도 장로(당시 목수)가 물레방아를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홍사석을 만나게 되고 전도하게 되었다. 홍사석은 한의학에 조예가 깊고, 침술에 능하고, 병고치는 은사가 있었다, 그는 해방 후 6.25 동란 이후 완주군 용진면에 이주하여 양전교회에서 1958년 장로로 장립되었다. 어머니와 형님의 소천이후 홍사석 장로는 강성락 영수와 부귀중앙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게 되었다. 홍사석 장로의 가정은 오늘날 부귀중앙교회에서 4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

사적지 지정 이유

부귀중앙교회는 현재 유형의 유산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무형의 유산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00년에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최초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로 11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1. 미국 남장로교의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숨결이 있는 교회이고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게 위해 최선을 다한 교회이다.
3.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배출하여 열악한 농촌교회였지만 한국교회를 위해 인재를 꾸준히 양성한 교회이다(정읍성광고회 김기철 목사, 익산 청안교회 주우경 목사, 주는 교회 주경민 목사, 삼기제일교회 김명상 목사, 배월교회 이주백 목사 등)

※ 부귀중앙교회가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지정’이 되면 교회는 옛 거석리 교회의 모습을 복원하고, 옛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복음전도의 전초기지 및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학습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기관장들, 군관계자들과 서로 협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백령도 중화동교회

백령도는 한국 최초의 복음전래지이자 기독교 전래의 관문으로 1816년 9월 1일 맥스웰(Murray Maxwell) 대령 휘하의 알세스트(Alceste)호와 바실 홀(Basil Hall) 대령 휘하의 리라(Lyra)호가 중화동(中和洞)포구에 도착한 곳이다.¹⁶⁾ 이어서 1832년에는 영국의 동인도회사 소속인 암허스트

16) 바실 홀(Basil Hall), 『조선서해탐사기』(집문당, 1999) p.22.

(Lord Amherst)호에 승선한 칼 귀츨라프(Karl F.A.Gutzlaff) 선교사 일행이 백령도 중화동 포구에 도착하여 성경을 나눠 주었다.¹⁷⁾ 그리고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영국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가 1865년 9월 8일, 백령도의 두무진(頭武津) 포구에 잠시 정박하여 그간 익혀둔 조선말로 전도와 성경책, 전도책자를 나누어 주었다.¹⁸⁾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령도는 조선 정부의 쇄국정책과 서양인 접촉 불허로 복음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모반(謀叛) 죄로 체포된 김성진(金聲振), 황학성(黃鶴性), 장지영(張志永) 등이 1897년 말 백령도로 유배되어¹⁹⁾ 오면서 복음이 다시 전래되었다. 그들 중 김성진은 소과(小科)에 급제한 진사(進士)였다. 그는 유배를 떠나기 전 감리교 신자인 그의 조카로부터 성경 한 권을 건네받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 김성진은 중화동에 거주하면서 한학서당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성경의 내용이 사서삼경에 근본됨을 깨닫고 허득을 설득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이와 같이 허득의 회심을 시작으로 1896년 6월경에 마을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은 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권유하여 마을사람 모두가 믿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월 25일 한문서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중화동교회가 설립되었다.²⁰⁾

1900년 11월 8일 목요일, 언더우드 목사 내외가 김씨 부인의 안내로 중화동교회를 방문하였다.²¹⁾ 언더우드 선교사는 중화동교회 성도들을 문답한 후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백령도 최초의 세례교인들로 허득, 허간, 허근, 허권, 허륜, 최영우, 김홍보 등이었다.²²⁾ 이들은 교역자 수가 절대 부족한 이 지역을 담당하는 지도자들로 백령도 지역 복음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중화동교회는 소래교회를 건축하고 남은 여재로 1899년 건축하였는데 초가 6칸으로 신축하여 1923년 합석으로 12칸 20평으로 개축하였다. 이후 1940년 와가로 23평을 개축하였고 1953년 와가로 36평을 개축하였으며 다시 1969년 시멘트 벽도조로 45평을 개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²³⁾

• 역사적 의미:

〈무형〉

1. 백령도는 1816년 맥스웰 대령 일행, 1832년 귀츨라프 선교사 일행,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일행이 잠시 이곳을 다녀감으로 최초의 기독교 신자 및 선교사를 접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사적 의의가 큰 지역이다. 이들의 중화동 주민들과의 접촉과 전도는 이후 백령도 주민들이 기독교 수용에 있어서 문화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
2. 중화동교회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모체(母體) 교회로 중화동교회 교인들의 전도로 백령도 전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다.²⁴⁾ 현재는 이 지역에 12개의 교회가

17)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기독교문사, 1971) p.42.

18) 김진현, 앞의 책 p.102.

19) 『고종·순종 실록』 고종 34년 7월.

20) 김지현, 위의 책 p.56.

21) L. H. 언더우드, 신복룡 . 최수근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1999, p.280-293.

22) 김지현, 「선택받은 섬 백령도」, 2002, p.178.

23) 김지현, 위의 책 p.56.



있으며 그중 2개는 군인교회이다. 이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은 모든 교회가 장로교이다. 백령도 10개 교회, 대청도의 2개 교회, 소청도의 1개 교회, 즉 13개 교회 모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중화동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실천적인 삶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3. 백령도는 섬 지역의 특성상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정기적인 의례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설립한 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의 설득으로 당산제를 폐지하는 데에 마을사람들이 동의하여 당산제는 폐지되었으며 지금까지 백령도는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 보기 드문 섬 지역으로 기독교적 신앙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4. 중화동교회는 한국 최초의 자생 교회인 소래교회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유일한 교회이다. 중화동교회 설립예배 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와 그 일행은 이곳에서 매일 교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었다. 낮에는 전도 강연을 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며, 20일간 집회를 이어가 자연히 소래교회의 신앙적인 정통을 이어 받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화동교회의 건축에 있어서도 소래교회는 일정하게 기여하였는데 소래교회를 건축하고 남은 건축 자재를 지원하여 중화동교회를 건축하였다.

〈유형〉

1. 중화동교회 상량(上樑)

중화동교회는 한국 교회역사에 보기 드물게 상량문이 쓰인 어간도리 3개가 보존되어 있다. 1939년 상량문과 1952년 상량문, 1968년 상량문이다. 이 상량문을 통해 중화동교회 신개축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유물이다. 그중에 1952년 상량문은 허간 목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특히 존경상제(尊敬上帝) 애인여기(愛人如己) 즉,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남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상량문에 적어 교회의 존재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으므로 교회사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 조사자 소견:

백령도 중화동교회는 1816년 맥스웰 대령 일행, 1832년 귀츨라프 선교사 일행,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체류하면서 한국 최초로 복음이 전래되어 기독교 사적지로 가치가 큰 곳이다. 또한 1896년 8월 25일 한문서당에서 교회가 설립된 이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모체(母體) 교회로 이 지역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백령도 10개 교회, 대청도의 2개 교회, 소청도의 1개 교회, 즉 13개 교회 모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총회가 이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여 총회의 자긍심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신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라 하겠다. 백령도는 중화동교회의 설립이후 당산제를 폐지하여 지금까지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 보기 드물게 기독교적 신앙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섬이다.

특히 중화동교회는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았고 중화동교회의 건축과정에서 소래교회의 건축 자재를 지원받아 소래교회의 신앙정통과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화동교회 상량(上樑) 어간도리 3개는 기독교 유형 문화재로서 보기 드문 유물로 교회사적인 가

치가 큰 것이다. 특히 1952년 상량문에 기록된 ‘존경상제(尊敬上帝) 애인여기(愛人如己)’의 글귀는 이곳을 찾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와 교훈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104회 총회에서 이곳을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하는데 손색이 없다 하겠다.

3. 익산 서두교회

1. 선교사적 의의: 익산지방의 최초의 교회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익산서두교회는 1898년 11월에 정정보가 전주선교부의 최의덕 선교사의 전도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설립하였다. 선교지역의 확장으로 부임한 마로덕 선교사(L. O. McCutchen)가 전주선교부에 부임하였다. 마로덕의 전도활동으로 서두교회는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192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903년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교회가 성립하다. 초에 정정보가 전도하여 신자를 얻고 교회가 성립되어 정정보가 인도자가 되었으며, 선교사 마로덕이 임무 하는 중 교회가 발전되니라.”(사기, 상권, 104쪽) 결국 익산서두교회는 토착인 정정보의 기독교 수용으로 시작되었으며, 후에 마로덕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익산서두교회는 전북지방 기독교 수용사와 전파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교회사적 의의: 전북 익산지방의 기독교계 발전의 중심 모체가 되었다.

익산서두교회는 지역 기독교 발전의 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익산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대개 익산서두교회를 중심으로 분립되거나 개척되었다. 1936년 3월 20일에 용기교회, 1946년 4월 27일에 세광교회, 1953년 12월 5일에 삼기교회, 1963년 4월 7일에 삼기제일교회, 1977년 5월 5일에 황등서부교회가 각각 분립되었다.

3. 민족운동사적 의의: 1919년 3.1운동 참여교회로서 민족운동사적의 의의를 가진다.

익산의 3.1운동은 오산면 남전교회 집사로 군산영명학교 교사인 문용기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때 서두교회, 함라교회, 옹포교회, 제석교회, 여산교회, 황화전교회, 선리교회, 금마교회, 신동교회, 고현교회, 이리교회 등의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4월 3일 익산 장날을 기해서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며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였다. 문용기를 선두로 서두교회 김병수는 일경의 칼에 뒷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으며, 박병렬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익산경찰서에 수감되었다. 마로덕 선교사는 3.1운동에 참여하여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순방하였다.

4. 순교사적 의의: 박병렬 장로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하였다.

이미 3.1운동 때에 민족운동에 앞장서서 수난을 겪은 바 있던 박병렬 장로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교회까지 밀려오자 박병렬 장로는 신사참배는 성경 제1계명에 위반되는 우상숭배 행위 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삼기주재소에 몇 차례 소환당하여 고문을 받았으며, 그런 고문 가운데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면 항거하였다. 삼기주재소에서 그를 감당할 수 없어 이리경찰서로 이송했다. 그는 이곳에서도 즐기차게 신사참배를 반대하였고, 이 길이 제국주의 일본이 망하는 길이라고 큰 소리로 항거하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던 일경은 그를 석방해 주었다. 석방되어 교회로 돌아왔지만 남은 것은 고문자국 뿐이었다. 이때 박병렬 장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증거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40년 9월 2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장례는 그의 순교적 신앙을 높이 평가한 교계 지도자



들과 마로덕 선교사의 집례로 교회 장으로 거행되었다.

5. 박병렬 장로의 순교비 기념비를 세우다.

박병렬 장로의 순교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의 시기에 기도했던 후배들과 제자 목사들이 그가 기도한 장소인 미륵산에 위치한 엘리야 기도원 경내에 1976년에 박병렬 장로 순교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다가 순교비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그가 섬기던 서두교회 경내에 세워져야한다는 뜻을 따라 당회의 결의로 1986년 7월 17일에 서두교회 경내에 순교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박병렬 장로는 현재까지 총회가 인정하는 순교자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역사사적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그의 순교신앙은 더욱 선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익산서두교회는 상기와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교회이므로 제104회 총회에 총회역사사적지 지정교회로 청원하는 것이 가능할 줄 알아 이에 보고하나이다.

* 참고문헌: 익산서두교회 100년사(1898-1998).

4. 대구지역 최초 선교사인 James E. Adams(安義窩)가 설립한 4개 교회-

사월교회(1898), 반야월교회(1905), 범어교회(1906), 대구서문교회(1912)

대구지역 초창기 선교사인 James E. Adams(안의와) 선교사가 1897년부터 1921년에 걸쳐 설립한 지역의 교회는 약 32개처이다. 이 중에서 대구선교기지가 있었던 대구권에서 그동안 지역교회사와 민족사에 미쳤던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 4개 교회를 선정하여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에 따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나이다.

1. James E. Adams 선교사의 대구지역 사역의 의의

대구 경북지방의 장로교회 형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아담스 선교사이다. 왜냐하면 그는 베어드 선교사가 선교기지를 마련하고 떠난 후에 대구에 상주하면서 사역했던 첫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대구에는 최초의 교회들이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계성학교, 신명학교)이 설립되었고, 또한 그와 협력으로 의료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아담스 선교사는 대구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인물이다.

특별히 그의 주된 사역인 교회의 설립은 대구 경북지역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가 대구경북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통합교단)을 설립한 후에 대구에서 동쪽 방향으로 자신의 선교구역울 정하고 열정적인 교회개척을 시도하였다. 이번에 우선 선정된 4개 교회 역시 대구를 중심으로 동쪽 방향인 그의 선교구역에 설립된 교회들이다. 이 4개 처 교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사와 지역사, 뿐만 아니라 민족사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이다.

2. 4개 교회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보고서

1) 사월교회: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시무: 최영인 목사)

1928년 총회에서 발간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에는 “1901년 경산군 사월리 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선교사 안의와의 전도로 신자 계흥해야 교회가 설립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월교회100년사>에 따르면 선교사공의시대인 1898년에 매호동에서 사월교회가 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후에 안의와 선교사를 통하여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기록만을 보더라도 사월교회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초창기에 설립된 교회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우선 토착민들이 복음을 받고 시작한 공동체가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교회로 구형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사월교회는 2019년 2월 24일에 총회로부터 ‘1919년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었다. 1919년 3월 9일 사월교회 김기원 목사는 경주제일교회(노동교회) 박영조 목사와 장로 윤기효, 박문홍 등과 거사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참여시키는데 앞장섰다. 사월교회 김경도 장로의 아들 김무생은 평양숭실학교 학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계성학교 학생 라상기 역시 사월교회 교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사월교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창기 설립한 교회로서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고, 역사관의 건립과 교회와 지역의 역사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1세기가 넘는 긴 시간동안 지역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 있다.

2) 반야월교회: 대구시 동구 안심로 55길 20 (시무: 이승희 목사)

반야월교회는 <반야월교회100년사>에 의하며 1905년 4월 3일로 적시하고 있다. 아담스 선교사의 전도로 당시 경산군 북면(현 대구시 동구 안심)에서 처음에는 ‘신기교회’로 시작되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동호동으로 이전하여 교회명을 ‘동호교회’로 개칭하였다.

초창기 예배당을 중심으로 1908년에 근대식 학교인 ‘계남학교’를 열어 지역 자녀들의 교육에 앞장섰다. 1905년에 설립된 ‘계동학교’는 1911년에 폐지되고 교회가 동호동으로 옮길 때 계남학교만 교회와 함께 하였다. 이곳에서 근대적 지식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민족의식의 고취 및 자주적 정신고양에 앞장섰다. 1935년까지 지역의 유일한 학교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구 희도학교에 학생들을 넘기고 폐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야월교회는 2019년 2월 24일 총회로부터 ‘1919년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었다. 당시 경산교회와 동사목회하던 서성오 목사가 경산교회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을 보면 반야월교회 역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반야월교회의 영수 송원재는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맡은 일로 옥살이를 했으며, 류(柳) 씨로 알려진 사람도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한 점이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반야월교회는 대구 동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로 지역과 하나님 나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이승희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답게 새로운 변화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반야월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겸한 교회로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에 있다.

3) 범어교회: 대구시 수성구 청호로 84길 71 (시무: 장영일 목사)

범어교회는 <범어교회100년사>에 따르면 1906년 9월 9일을 설립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1903년에 이미 사월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박순이, 배양이, 조달숙이 대구제일교회를 출석하다가 1905년경부터는 정일수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자들이 불어나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범어교회 역시 토착민들이 시작한 교회를 후에 아담스 선교사를 통하여 교회의 체제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범어교회 설립초기에 사역한 인물들은 한국교회사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사에도 큰 역할을 한 자들 많다. 대구경북의 최초의 조사, 장로, 목사인 김기원은 이 교회의 첫 사역자였고, 제1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염봉남 목사 역시 이 교회의 조사로 사역한 바가 있다.

1920년에는 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인 봉급 90원을 현금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경은 이것을 상해임시정부 군자금으로 오해하여 조사 염봉남, 배석주, 장로 유병기 외 교인 4명을 구속하여 일주일간 유치하였던 적도 있다. 이처럼 고난의 시절에도 교회는 사경회를 개최하여 꾸준히 신앙을 지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범어교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와 교세를 가진 교회답게 지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4) 대구서문교회: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93길 9 (시무: 이상민 목사)

대구서문교회는 1912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다. 당시 대구읍교회(현재 대구제일교회)가 신자로 넘치자 인근의 성도들을 모아 기도처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제증원 대합실에서 모여 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대구읍교회로부터 약 150여명의 교인들이 분립하여 독립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당시 대구읍교회에서 사역하던 아담스 선교사와 한국인 지도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서문교회의 특기할 역사는 1919년 대구 3.1운동에 주도적인 지도자들이 이 교회 소속 교인들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재순 목사는 제일교회 이만집 목사,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와 함께 대구 3.1운동을 주도하였다. 서문교회의 김영서 장로는 계성학교 교사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대구운동이 학생운동의 특징을 짓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정재순은 징역 2년, 김영서는 2년 6개월, 정광순, 권희운은 1년 6개월, 이재인은 1년형을 언도받은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문교회는 정재순 목사와 더불어 신사참배의 혹독한 시련기에도 말씀과 기도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대구서문교회는 장로교회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는데, 우선 이 교회에서 세 명의 총회장이 배출되었다. 1928년 제17회 총회장으로 염봉남 목사, 1953년 제38회 총회장으로 명신흥 목사, 1988년 제73회 총회장에 이성현 목사이다. 한국교회사에서 한 교회에서 총회장을 3명이나 배출한 교회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구서문교회는 한국교회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1959년 WCC 예큐메니칼 사태 때 대구서문교회는 반 WCC의 대구 경북의 대표교회로서 교단의 위기 때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물론 이로 인해 교회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할 수 없지만 끝까지 보수개혁주의 신학의 파수에 대구서문교회의 역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에 대구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대구서문교회를 담임했던 명신흥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총회 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장을 절제하는 어려움 속에도 총회신학교 구 본관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미국을 누비며 활동한 것은 눈물겨운 일화이다. 현재 원로목사인 이성현 목사는 탁월한 설교자요 교정가로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현재 이상민 담임목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봉사과 섬김의 목회를 이끌고 있다.

3. 보고자의 의견

이상의 4개 교회는 다음 몇 가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교회로 평가된다.

1. **선교사적 의의:** 이상의 4개 교회는 공히 대구지역 최초의 선교사인 아담스의 선교와 연관된 교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 **교회성장사적 의의:** 이상의 교회들은 무엇보다 지역에서 역사가 깊은 교회답게 지역의 기독교 성장에 대표적인 족적을 남긴 교회들이다.
3. **교단사적 의의:** 이상의 교회들 중에는 교단의 분열기나 또는 개혁주의 신학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교단과 신학을 파수하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교회들이다.
4. **민족사적 의의:** 이상의 교회들 중에는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회가 있으며, 또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밀려드는 피난민들의 구호와 복지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5. **지역교회사적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교회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의의들로 인해 이들 4개 교회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총회가 지정하는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선정되기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차후 이를 기점으로 아담스 선교사들과 관련된 여타 교회들에 대한 사료적인 검토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사월교회 100년사, 1998.
 반야월교회 100년사,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다, 2005.
 범어교회 100년사, 2007.
 대구서문교회 100년사, 2016.

백령도 ‘한국기독교 섬 지정’ 연구보고서

백령도를 우리 합동 교단에서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

I. 백령도의 지리 및 역사

백령도(白翎島)는 북위 37도 58분 동경 125도 40분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 북서쪽, 옹진반도 서쪽에 있는 대한민국 관할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속하며, 대한민국에서 15번째로 넓은 섬으로, 면적은 51 km², 인구는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5,721 명, 3,235 가구이다. 예부터 백령도는 중국이 가장 제일 가까운 섬으로, 중국 산둥 반도와와의 교통 중개지였고,



현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군사상 요충지이다. 이 섬은 본래 황해도에 속해 있었고, 주민들 다수가 이 섬 토박이이거나 황해도 육지 출신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황해도의 향토문화(방언·음식 등)가 잘 보존되어 있다.

고구려 때는 곡도(鶻島)라고 불렸고, 고려 현종 9년부터 백령도라 불렸다. 본래 백학도(白鶴島)라고도 일컬어졌는데, 이름에 관한 사또의 딸과 선비의 설화도 전해진다. 1018년(고려)에 백령진(白翎鎭)이 되었다. 1428년(조선)에 황해도 장연군에 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한 후, 같은 해 9월 2일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점령했다. 백령도는 대청도·소청도와 함께 38선 이남의 인근 옹진군에 편입되었고, 황해도 옹진군은 경기도 옹진군으로 재편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3개월 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점령하였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에 따라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 및 연평도 등 서해5도는 대한민국에 남게 되었다. 1995년 3월 1일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II. 한국 복음의 관문 ‘백령도’

한국의 개신교는 1884년 9월20일 알렌의 선교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반세기 이전에 한국 선교를 위해 서해안 백령도를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백령도에서의 최초의 복음 접촉은 1816년(순조16년) 영국 해군함정 두 척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척은 맥스웰 대령이 지휘하는 알세스트 호였고, 다른 한척은 바실 홀 중령의 리라호였다. 서해안 해로 탐사를 위하여 9월1일 이들은 대청군도 앞바다에 배를 정박하고 소형보트로 맥스웰 대령, 홀 중령, 클리포드 해군대위, 브라운 해군 생도, 중국인들이 가까운 섬의 포구를 향해 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백령도였다. 그리고 이들이 첫발을 내딛은 포구가 백령도 최초의 모교회를 탄생시킨 중화동 포구였다. 이들 가운데 클리포드 해군 대위는 해군 탐사보다는 기독교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로 선물과 성경, 전도 용지등을 손수레에 끌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썼다. 이렇게 클리포드는 백령도에 첫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해로 탐사와 더불어 선교 가능성의 타진은 백령도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

두 번째, 칼 귀츨라프의 선교사의 접촉이다. 귀츨라프는 극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상 교섭과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임무를 가졌던 당시 동인도회사 소속의 암허스트호를 타고 통역과 선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암허스트가 조선을 향해 항해를 하던 중 해무로 인해 한 섬의 어느 포구 가까운 곳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백령도의 중화동 포구였다(1832년 7월 18일). 중화동에서 온 주민들은 귀츨라프 일행을 해안으로 초청하였고, 식사 및 필담을 통해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귀츨라프 선교사는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세 번째로 귀츨라프 선교사가 다년 간 후 약 33년이 지나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선교에 관심을 갖고 1865년 9월4일 우문태의 범선을 타고 중국 지프항에서 조선으로 항해를 하였다. 그리고 9월8일 우문태의 범선이 배를 정박 곳은 바로 백령도의 두무진 포구였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조금씩 익혀 두었던 한국말을 더듬더듬 건네며 눈치 있게 성경책과 전도 문서를 전했다. 이렇게 토마스의 복음의 일정은 백령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866년 1월초에 토마스는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후 7개월이 지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백인 4명과 19명의 말레이시아인 및 중국인을 실은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1866년 8월 9일 중국 지프항을 떠나 다시 조선으로 항해를 하였다. 배는 이틀을 항해한 끝에 백령도와 대청도 어간에 정박했다. 이어서 서면호에서 내린 작은 보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와 몇 사람이 포구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 포구가 바로 중화동 포구였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있어서 두 번째 백령도를 방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중화동에 상륙한 토마스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서 성경책을 전달했다. 백령도를 떠난 이후 연 5일의 항해 후에 제너럴 서면호는 대동강 어귀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토마스는 1866년 9월2일 대동강 변에서 27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이다.

III. 백령도의 종교 분포 및 개신교 교회 현황

백령도는 1995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복음화율이 무려 65%였다. 현재는 대략 60%정도이다. 백령도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 불교 사찰은 백령 주둔 해병 여단 안의 흑룡사 뿐이며, 천주교는 군의 흑룡 성당 1곳과 현재 진촌 지역에 있는 민간 성당 1곳 총 두 곳 뿐이다. 반면에 기독교 개신교 교회는 17개리 동네에 군인교회(해군 및 공군) 2개를 포함하여 12개 교회이다. 특기할 것은 군인 교회 2개를 제외한 백령도에 있는 교회는 10개인데 모든 교회의 교단은 우리 교단 소속 교회이다. 현재 10개의 교회의 설립일, 교역자 및 장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백령도 소재 본(합동)교단 소속 10개 교회

번호	교회명	설립일	담임목사	시무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1	중화동교회	1896. 08. 25	조정현	최의신	김규현, 조순만	김형원, 이영오 김연웅
2	사곶교회	1905. 09. 15	이봉우	김만길, 박창선		최형재
3	진촌교회	1906. 04. 15	이 철	김정석, 최영범 최영빈, 심홍신 장형구 김기흠(협동)	이형걸, 박순진 이유일, 박성효	김정찬
4	화동교회	1917. 03. 16	박윤환	김인준	장응립, 최지우 박원석, 최준옥	윤석용, 장두신
5	가을교회	1924. 03. 01	양희문	최정재		박은서
6	연지교회	1939. 12. 07	권오영			
7	장촌교회	1952. 08. 16	강상용	최남희, 장세철	장두표, 원종찰	
8	백령중앙교회	1953. 12. 27	김병수	박준혁, 김무용 노용식, 정치권	김인숙, 김정문	박의무, 김명삼 유경률, 한시현 박준철
9	두무진교회	1974. 06. 09	김태섭			
10	백령 한사랑교회	1988. 07. 21	김주성	함응택		

<표>에서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백령도의 최초의 교회는 중화동교회이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는 중화동교회, 사곶교회, 진촌교회, 화동교회 등 총 4개교회이다. 그리고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8개,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는 2개이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령도의 마을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IV. 백령도를 본 교단 지정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

백령도를 우리 합동교단이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백령도는 개신교 선교사인 알렌이 1884년 한국에 입국하기 전 반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며, 초기 한국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다.
2. 백령도는 칼 귀츨라프 및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등의 신앙의 숨결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섬 가운데 유일하게 최초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중화동교회)로 시작하여, 오늘날 각 마을들의 중심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3. 백령도에 세워진 12개 교회 중 군인교회(해군, 공군)를 제외한 10개 교회는 모두 다 우리 합동교단 소속의 교회이다. 또한 백령도의 지정학적 위치(인천에서 백령도까지의 뱃길이 대략 5시간 소요)와 환경(바다 해무 인한 백령도 뱃길의 어려움 등)로 인해 우리 교단 이외의 타 교단이나 교파에서 백령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이 섬은 우리 교단만이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고루 갖추었다.
4. 백령도는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자연스럽게 복음전파의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최북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일 및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또한 다음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신앙교육장으로도 매우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현재 백령도는 중화동교회 바로 옆에 백령기독교 역사관이 세워져 있으며, 또한 웅진군과 인천광역시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백령 근·현대사 문화공원 조성 사업’(일명: 바이블랜드, 약 300억 예산)을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백령도 사회 단체장 및 우리교단 목회자들 및 장로들, 교수들로 구성됨)를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과 맞추어 백령도를 우리 교단에서 ‘한국 기독교 섬’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총회역사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3회 총회 수입사항

- 군산동노회장 임홍길 씨가 현의한 군산구암교회를 총회역사사적지로 지정 요청의 건과
- 남중노회장 고평중 씨가 현의한 소록도교회(중앙, 신성, 동성, 복성교회)를 총회사적지로 지정 청원의 건과
- 동전주노회장 백병람 씨가 현의한 부귀중앙교회 옛 교회당 복원 및 사적지 지정 요청의 건과
- 군산노회장 신광현 씨가 현의한 개복교회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로 지정 청원의 건과
- 남광주노회장 정판술 씨가 현의한 삼도교회를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지칭 청원의 건과
- 김제노회장 양병국 씨가 현의한 광활교회를 순교자교회로 지정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의 건과
- 전남제일노회장 강민수 씨가 현의한 법성교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 현의의 건은 역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른 상설위원회 규정 개정 건

- 제103회 총회에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되어 총회역사위원회의 총회임원 당연직을 축소하기로 결의하여 위원회에서 개정절차를 밟도록 요청하여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여 총회 규칙부로 개정규정 심의와 함께 제104회 총회시 규정 개정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

3. 제103회 추진 사업개요

추진사업명	일 시	추진부서
1) 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2019.2.18(월)11:00, 고흥읍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1호	사적지 지정분과
	2019.2.18(월)14:00, 소록도5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2호 및 순교사적지 제3호	
	2019.2.20(수)13:00, 법성교회 /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5호	
	2019.3.9(토)14:00, 군산구암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7호	
	2019.3.14(목)11:00, 중리교회외 5개교회 /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4호	
	2019.3.14(목)15:00, 송천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0호	
	2019.3.16(토)14:00, 개복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8호	
	2019.4.10(수)19:30, 전주서문교회 /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6호	
	2019.4.27(토)11:00, 삼도교회 /	



추진사업명	일시	추진부서
2) 사적지 발굴 현장답사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3호 ※ 광주양림교회(별도 지정식 없었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9호	
	2019.3.16(토)10:30, 광활교회	
	2019.4.10.(수)13:00, 부귀중앙교회	
	2019.6.2.-6.4, 백령도 중화동교회	
	2019.6.24(월)11:30, 익산서두교회	
2019.6.25.(화)11:30, 영주연당교회		
3) 연구학술세미나	2019.3.21.(목), 승동교회당 / 공동주최 : 총회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총회역사위원회	연구분과
4) 정기연구학술 저널집「장로교 역사와 신앙」제2호 발간	제104회 총회현장 배부	
5) 전국교회 사료기증 제출독려	2019.1.29. 기독교신 5단 광고 / 2019.1.18. 전국노회 협조공문 발송	사료분과
6) 총회유물 제1호 역대 총회회의록 스캔, 전자문서(PDF) 생성 작업	작업기간 : 2019.6.10.~7.5 38회 총회회의록~88회 총회회의록 스캔작업	

4. 제104회 사업계획(안)

구분	추진사업계획(안)	해당 예산금액
회의비	전체회의 / 임원회의 / 분과회의	15,000,000
임원회	가이드북 재고소진 추가제작	10,000,000
	총회역사관 운영관리비 (임시직채용, 자료교체, 시설보수)	20,000,000
	역사위원회 및 사이버 총회역사관 홈페이지 구축	5,000,000
	역사유물 인수시 제경비	5,000,000
사료분과	역대 총회회의록 영인본 작업 추진	20,000,000
	기획전시전 개최준비	10,000,000
	전국교회 사료수집 및 기증 홍보독려	5,000,000
	사료실 분류작업 및 목록화작업 임시직 채용 기타 책장 및 관련 기자재 구입	15,000,000
사적지 지정분과	사적지지정감사예배 (7곳)	20,000,000
	사적지발굴 현장조사 및 연구보고서 작성	5,000,000
연구분과	정기간행물 역사저널집 「장로교 역사와 신앙」	20,000,000
	정기학술 세미나	20,000,000
3.1운동연구분과	3.1운동100주년 전국참여교회 발굴 및 현판제작	5,000,000
합계		175,000,000

청 원 서

수 신 : 총 회 장
 참 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 목 : 제104회기 위원회 사업 및 예산청원

1.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청원 건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를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14호 / 부귀중앙교회 제15호 / 백령도 중화동교회 제16호 / 익산 서두교회 제17~20호 /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 사역지 대구 지역교회- 사월교회(제17호), 반야월교회(제18호), 범어교회(제19호), 대구서문교회(제20호)

2. 교단차원에서 백령도를 “한국 기독교의 섬” 명명 사용 청원
3. 총회유물 제1호 역대 총회회의록 전자문서(PDF) 자료공개 및 영인본 제작배부 청원
4. 전국노회, 교회, 총회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역사간행물 총회역사위원회로 2부씩 의무제출 청원 건(교회사, 노회사, 기관사, 노회록 사본 등)
5. 역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조사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제위원(18인) 중 3인 이내로 역사관련 전문가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청원
 총회역사위원회의 제104회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금 액	비 고
회 의 비	15,000,000	- 전체회의(2회) : 5백만원, -임원회 및 분과회의 : 1천만원
연구관리비	160,000,000	- 총회역사관 가이드북 재고소진 추가제작 : 1천만원 - 총회역사관 운영관리비(임시아르바이트, 자료교체, 시설보수) : 2천만원 - 역사위원회 및 사이버 총회역사관 홈페이지 구축 : 5백만원 - 역사유물인수제경비 : 5백만원 - 역대총회회의록영인본제작추진 : 2천만원 - 기획전시전 준비 : 1천만원 - 전국교회사료수집 및 기증등록활동 : 5백만원(기독교신문광고, 팸플렛 제작) - 사료실 분류작업 및 목록화작업, 기자재구입 : 1천5백만원 - 사적지지정감사예배(7곳) : 2천만원 - 사적지발굴 현장조사 및 연구보고서 작성 : 5백만원 - 정기간행물 역사저널집 「장로교 역사와 신앙」 : 2천만원 - 정기학술세미나 : 2천만원 - 3.1운동100주년 전국참여교회 발굴 빛 현판제작 : 5백만원
합 계	175,000,000	

2019년 9월

총 회 역 사 위 원 회
 위 원 장 박 창 식
 서 기 신 종 철